

## 편견과 환경요인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이지연 (호서대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수료)\*

정찬구 (호서대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국문 요약

창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임에 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도전하지 않고 향후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표는 고용축소를 예측할 수 있고 실업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는 경제적 고통과 미래의 소중한 인력의 방치로 국가적으로 보다 현실적인 창업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편견과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창업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227부의 응답을 표본으로 SPSS.25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편견은 창업의지를 감소시키고, 실패두려움을 증가시켰다. 반면에 창업자의 환경요인은 실패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창업의지는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실패두려움은 두 독립변수와 창업의지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편견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요소이고 환경은 긍정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창업가의 올바른 인식과 지지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요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의지, 편견, 환경요인, 실패두려움, 기업가정신, 창업

## 1. 서론

전세계가 2020년부터 겪은 3년여의 긴 COVID-19 팬데믹의 위기와 급등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는 저성장 위기 상황에 있다.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은 더 큰 경제파동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안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제2금융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경제 위기감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스타트업은 폐업을 결정하거나 후기 투자 유치 취소 등의 이유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창업에 대한 성공가능성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식된 창업가의 창업의지가 더욱더 저하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창업시장에 퍼지고 있다.

청년들의 자아실현 욕구와 어려운 취업난의 대안으로 제 2의 창업 벤처붐이 최근 10년간 늘어나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2018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증가하였다(김기현·배정희, 2021).

창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고용이 늘어나야 취업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표는 청년 취업에 관하여 더욱더 암울한 전망을 내포할 수 있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 창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변화를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희, 2018).

또한 Schumpeter(1934)는 창업에 대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제 활력의 지표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략적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창업 생태계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으로 구축 가능한 환경이 아니므로 국가는 기술적·사회적 창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와 예측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통하여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중소기업벤처부, 2022).

기업가(entrepreneur)는 없던 기업을 새로 만드는 사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며 자금, 인재의 부족 등 없는 것이 많고 하여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와 추진력, 희생 등으로 현 위기의 상황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인물이다(지용희, 2003). 이와같이 저성장·인플레이션인 현 환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며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가의 출현은 매우 기대될 수 밖에 없고 이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 수료, nicestjyl@gmail.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jck216@hoseo.edu

· 투고일: 2023-09-14 · 1차 수정일: 2023-10-19 · 2차 수정일: 2023-10-27 · 게재확정일: 2023-10-27

들의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긍정적인 창업환경 조성보다 면밀한 제도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창업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업의지에 대한 결정 동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창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지배적인 모델인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델을 토대로 그중 신념을 내포한 태도에 대한 변인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인 편견을 변수로 재설정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두려움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오상훈·하규수(2013)의 연구에서 환경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창업자의 내·외부적 환경요인을 변수로 실패두려움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편향된 인지적 오류이며 충분히 근거 없이 미숙하고 성급한 판단인 편견과 내·외부적 환경요인이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의지 간의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연구한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에 대한 학계의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창업에 대하여 단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편견과 환경요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해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편견

‘편견’은 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검토나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단이라는 의미로, 어원은 라틴어 명사 ‘*praecjudicium*’에서 파생되어 영어로 ‘*prejudice*’이다. 라틴어 ‘*praecjudicium*’은 고대인에게 ‘선례(*precedent*)’이며, 일전의 이루어진 경험에 근거해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의미이다. 즉, ‘편견’은 미숙하고 성급한 판단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기반이 아닌 ‘충분한 근거 없이’ “자신이 그 위에 있지도 않은 어떤 것을 내려다보는 것”이라 정의한다(Gordon Willard Allport, 2020).

울포트는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 시키려는 사회적 범주와 그 과정이 사회적 편견 발생과 존속의 근본 원인이라는 립만(Lippmann)의 논의를 발전시켜서 ‘사회 범주화 이론’을 인지적 관점으로 연구하였다(추병완, 2012).

인간은 일반화, 개념, 범주를 형성하려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반화, 개념, 범주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잉적인 단순화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적인 범주를 쉽게 편견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범주는 요즘 사회적 문제인 가짜뉴스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같은 가짜뉴스는 순전히 소문에 의한 증거와 정서적 투사 그리고 망상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편견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일말의 진실조차 있을 수가 없다(Gordon Willard Allport, 2020)고 논의한다.

언급한 편견의 개념적인 정의로만 보아도 편견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오류를 일으키도록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편향된 인지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Tajfel(1982)은 ‘사회 범주화 이론’에서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짓는 것만으로도 범주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편파적으로 형성하는 편견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범주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신이 속하는 내집단과 속하지 않는 외집단으로 구분 짓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그 속하는 내집단은 보다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여기는데 반해 자신이 속하지 않는 외집단은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지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편견에 대한 국가별 사례로 해외에 나가면 “일본인은 공장을 짓고, 중국인은 식당을 열고, 한국인은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머니투데이, 2004).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에 대하여 이와같은 편견은 국가적·인종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 범주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편견에 대한 또 한 예로 대한민국의 오랜 병폐 중의 하나인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다. 이 편견은 선거 때마다 여실히 드러나는데 영호남 간의 갈등을 넘어서 특히 전라도인에 대해서 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편견은 타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에 기반하여 편파와 차별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홍영오, 2000).

김진국(1998), 김혜숙(1988)의 연구에서도 지역에 대한 편견은 타 지역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음에도 이유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인다고 하였다. 지역적 편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편견은 미성숙된 판단으로 나라의 발전에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활동과 창업활동에 중대한 인지적 오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대 정주영(1998) 회장의 ‘이땅에 태어나서’ 회고록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과는 너무나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한 속죄양으로 너무 여러 번 기업을 단죄받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편견의 주범이다. 큰 기업을 부정 축재와 정경유착의 근원으로 삼은 부정적인 편견과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기업경영자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도 어리석은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유교사

상이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청빈낙도를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여서 군자를 존경하고 사농공상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상商’을 천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앞장서서 세일즈맨 역할을 할 만큼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지금은 인식이 다소 변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역시 기업을 보는 시각은 마뜩찮은 옆눈질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대하여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지적 오류의 결과인 편견은 기업활동과 창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발전에 근원적인 발동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창업 의지를 저해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2. 환경

환경은 일반 환경과 특수 환경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광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특수 환경은 특정 사람 또는 조직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협의적인 개념이다. 이에 창업 환경은 특수 환경이고 기업이 반드시 적응해야 할 기업활동의 외부적 조건이다(Aldrich, 1979).

창업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창업환경의 범위와 정의가 다양하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창업환경의 요인도 매우 많아졌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 활동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적 영역으로 창업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창업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으로 창업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성은정(2019)에 의하면 창업환경이란 ‘창업활동에 직·간접적 또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이며 개인적인 특성에서부터 사회적 인식, 각종 창업지원제도,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이 모두 창업환경에 포함되고 창업자의 인적 네트워크와 교육 시스템, 문화와 가치까지도 창업환경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했다.

오상훈·하규수(2013)과 이홍장(2016)의 연구에서 창업 환경에 대하여는 선천적 인적특성요인과 후천적 인적특성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요인’과 경제적 환경요인과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외부 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 2.3. 실패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잠재적 창업가 및 현 창업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된 공포이다. 특히 실패 문화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창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다. 기업 경영의 실패는 기업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업가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진흥원 창업기업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초기 창업자의 창업저해요인으로 첫 번째가 창업자금확보이고, 두 번째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 결과는 창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G20 국가의 18-40세 청년에 대하여 사업 실패를 사회에서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20 국가의 평균은 39%인 것에 반하여 한국은 단 24%만이 그렇다(YES)고 대답하였다.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응답 결과이며 한국의 실패두려움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rnst & Young 보고서, 2011). 이것은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위험이 크면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실패부담감 또한 있다면 작은 창업활동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오상훈, 2014).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실패두려움은 많이 입증된 심리적 장벽이고 개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재정적, 정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미리 우려할 수 있으므로 실패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실패두려움에 대한 판단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가정신보다 더 안전하고 전통적인 직업 경로를 선택하게 하고, 위험 회피자로 이끈다.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을 살펴보면 위험회피성향을 일부 살펴볼 수 있는데 20년 전에는 도전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취업준비자들에게 공무원 취업을 위한 공무원 시험이 사회적 현상이었고, 요즘은 SKY에 입학한 대학생 약 2천여명이 자퇴하고 의대에 재진학을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더 높은 고수입을 지향한 의사가 되기 위한 의대 쏠림 현상도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으로 인한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클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상훈(2014)은 창업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benefit)보다 실패시 부담하는 비용(cost)이 더 클 때 실패두려움은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김영희(2018)는 실패두려움(Fear of Failure)에 대하여 성취동기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회피적 동기(avoidant motivation)로 개념화되었다고 한다. 즉 성공하고자 하나 실패의 결과로 따르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려는 회피적 동기라는 것이다. 윤남수(2012)는 성취동기이론을 바탕으로 강한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용하였다. 또한 창업활동에 있어서 실패두려움은 경제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의 두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두려움이란 지각된 위험으로 정의되며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회-문화적 특질이며 위험 회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창업의지를 감소시키고 창업 과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Alon & Lerner, 2008; Vaillant & Lafuente, 2007; Pathak & Autio, 2010; Hessels et al., 2011; Brixly et al., 2012; Shinnar et al., 2012)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순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두려움은 별개

의 부정적 정서이다. 실패에 대해 부끄러움을 경험할 성향, 그리고 시도도 하기도 전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하게 되는 감정 또는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볼 수 있다(Welpe et al., 2012; Mitchell & Shepherd, 2010; Wood & Pearson, 2009; Ekore & Okekeocha, 2012). 심리학적 관점에서 Tam & Redding(1993)의 연구는 사업 성공을 통하여 개인의 신분 상승과 사업 실패로 연계 되는 체면 손상이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박남규(2015)의 연구에서도 사업 실패 시 연계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은 창업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하지만 Shapero & Soklo(1982)는 창업가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새로운 창업을 이행하려는 가치 있는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창업 활성을 위하여 의지가 우선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있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Krueger & Carsrud 1993; 윤남수, 2012).

Shapero & Sokol(1982)이 제시한 “창업 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과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창업의지에 관한 대표적인 개념적 이론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Shapero & Sokol(1982)의 “창업 이벤트 모델”은 지각된 욕구와 기회에 대한 행동성향, 지각된 실현가능성으로 창업의지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고,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의하여 창업 의지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Ajzen(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창업 의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행동에 대한 태도,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의 3가지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으로서 태도는 그 신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

인간의 행동은 계획된 인지적 과정으로 수행되고 그 행동을 유도하는 의도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 즉, 행동 의도는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강병승, 2020).

오늘날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는 이유와 창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탐색과 이해는 중요하다. 어떠한 요인들이 청년들의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창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창업 활성의 관건은 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창업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강인한 창업의지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창업가 중 한 분을 예로 들자면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다. 고 정주영(1998) 회장의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에 의하면 강인한 창업의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서술하였다. ‘오늘의 한국 기업의 규모와 경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창업주의 불굴의 의지, 진취적인 실천력을 구심점으로 하고 그 위에 우수하고 부지런한 근로층의 혼신의 힘이 집결되어 맺어진 과실이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 말이다. 이 인적자원의 위력은 여타 물적 자원과 비교될 수가 없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경제란 돈이 아니라 민족의 생명력에 진취적인 정기를 불어넣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의 부존자원은 유한한 것이지만 인간의 창의와 노력은 무한하다. 자원에 의존한 경제 발전은 자원이 고갈되면 발전도 멈추고 말지만, 일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발전은 인간이 나태해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있다.’며 창업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 III.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 3.1. 편견 선행연구 및 가설

‘사업 아무나 하나...’와 같은 말을 흔히 듣듯이 창업은 타고난 능력자에게 유리한 영역인지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창업의 성공 여부는 타고난 창업 실행 능력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다. 즉, 편견을 벗어나 누구나 준비된 도전을 통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남정민 외, 2013).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필터에 의해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해석의 주관성인 편견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편향’(cognitive bias)이라고 한다(하환호, 2012).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유 경향(predisposition)이 그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서 창업에 대한 좋고 vs 나쁨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을 말한다(하환호·변충규, 2014).

본 연구에서는 하환호(2012) 연구의 ‘인지적편향’(cognitive bias)에 대하여 고든 올포트(Gordon Willard Allport, 2020)의 개념을 받아들여 편견이라고 언급하고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젠더, 연령, 지리적, 학력, 사회적 편견을 함의한 연구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조사해보았다.

창업시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으로 조사된 연구 중에서 하규수·한정화(2010)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 결

과, 성별(젠더)이 사업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에 더 호의적이며 창업 의욕도 더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박종복(2018)은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및 경영자특성이 초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성별(젠더) 차이에 따른 경쟁적 여건이 경영자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선경(2023)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 중 남성인기업이 여성인기업에 비해 부실 위험이 높았다. 공혜원·추승엽(2021)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젠더 편견이 실제로 창업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공혜원·김효선(2018)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문화적인 편견 문제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창업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바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듯 젠더 편견은 창업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사회 문제로 일찍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 정년으로 은퇴하는 세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창업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중장년 창업은 정체된 고용시장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되고 있다. 피 끓은 젊은 세대인 20대~30대의 창업이 성공확률이 높다는 편견이 무색하게 많은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창업을 하는 중장년의 창업 생존률도 청년에 비해 높은 걸로 나타났다(김도희, 2023) 또한 최양애·동학림(2019)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었으며 45세~50세 미만이 창업의지가 가장 높았다. 아기마(2022)의 연구에서는 40대 미만보다 40대 이상일 때 창업의지에 보상만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훈(2014)은 청장년층과 시니어 그룹의 창업인식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시니어층의 사업 실패부담감이 청장년층 보다 크고 부정적인 창업환경의 여건에 대하여 청장년층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직 전후의 시니어층의 창업의지는 오히려 청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종범(2019)의 연구에서 시니어의 경력지향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창업교육만족도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경력을 보유한 자신감이 있는 시니어는 창업의지가 높고 그렇지 않은 시니어는 창업교육을 통하여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선경(2023)의 연구에서 10대, 40대, 60대의 경우 창업 기업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연령은 창업의지와 연관성이 있으며 연령층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명애(2012)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특히 지방에 소재한 여성기업의 경우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획득 및 시책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선경(2023)의 연구에서 주거인구 규모가 많은 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부실 가능

성이 낮았다.

윤남수(2012)는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창업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주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부(-)의 영향을 주어 사회적 인식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김석현(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이 일부 소수의 능력있는 기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편견이 약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창업대중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근거없는 편견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편견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3.2. 환경 선행연구 및 가설

Sjölander & Berterö(2008)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만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 및 이웃 그리고 기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인 긍정적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지지 구성요소 중에서 가족과 친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을 할 때는 가족의 동의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기마(2022)의 연구에서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의 가족 지지가 낮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할 때 창업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Liñán-Guerrero(2011)는 지역별 경제적 차이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은 창업환경이 실제 창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역과 안달루시아 지역을 비교하였고 카탈루니아 지역이 경제적, 산업적으로 더 발전했고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창업지원이 활발하였으며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안달루시아 지역에 비하여 창업에 대한 의지가 더 높고 창업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발전된 지역의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였다. 또한 창업환경이 부정적일수록 창업율은 개인의 태도와 무관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Gnyawali & Fogel, 1994; 이홍장, 2016 재인용)

오상훈(2014)의 연구에서 창업가의 주관적(심리적)·객관적 창업환경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오상훈·하규수(2013)의 연구에서도 창업에 대한 접근을 개인특성 접근법보다는 환경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특히 한국인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 실패부담감이 창업환경과 창업의지 간의 매개변수로써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송경숙(2015)은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자 환경,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 환경, 조직외부 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창업환경이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 환경이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정길호·김병근(2017)는 기술창업기업의 창업 환경요소인 창업자의 역량과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지원활용이 기술경쟁력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고, 창업자의 역량, 조직 문화, 외부협력 및 창업 지원은 기술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술경쟁력은 창업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박성호(2017)의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환경의 하위변인으로 창업 사회적지지, 고용상황가 창업의지와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용상황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였다. 그리고 창업환경, 창업자기효능감, 경제적 실패부담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매개효과, 창업지원제도는 조절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오상훈(2014) 연구의 환경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언급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내부적·외부적 환경요인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논문에서는 환경요인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환경요인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3.3. 실패두려움 선행연구 및 가설

대한민국에서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 1순위는 실패두려움이라는 보고가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5). 창업의 근본적인 걸림돌인 실패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하와 같은 연구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다.

Arenius & Minniti(2005)는 28개 국가의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기업가가 되기로 하는 결정에 어떤 변수가 유의미하게 상관되는지 조사하였는데 기존의 경제학 문헌과 유사하게 인구 특성 및 경제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기회에 대한 경각심, 실패 두려움 및 개인 역량에 대한 확신과 같은 변수가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영희(2018)은 창업 실패두려움 중 재무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경력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상훈·하규수(2013)은 사업 실패부담감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수진 외(2016)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계획된 행동모델의 구

성요소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여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규수(2009)의 연구에서는 사업실패부담감을 재무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비재무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패기업 처리 시스템의 비효율에 대한 부담감 등 3가지 변인을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사업투자 자금의 손실로 인한 부담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족의 안정과 화목에 대한 위험 및 차입금에 대한 손실 순으로 사업실패부담감에 요인을 규명하였다.

하규수·윤백중(2011)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창업의지를 증가시키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규수(2012)는 사업 실패두려움이 적을수록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창업의지 또한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오상훈·하규수(2013)의 연구에서도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환경적요인이 창업의지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준 외(2020)는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 실패부담감을 낮추고, 창업의도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창업 실패부담감은 창업의도를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재호(2016)는 실패부담감을 창업저해요인으로 보고 창업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증명하였다.

언급된 선행연구로 보아 역량은 있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촉진요인의 확산보다 창업저해요인의 제거와 감소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저해요인인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창업의지와 매개모형을 통해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 편견과 환경요인의 변수가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편견은 실패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환경은 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5: 실패두려움은 편견과 창업의지 간을 부분 매개할 것이다.**

**가설 H-6: 실패두려움은 환경과 창업의지간을 부분 매개할 것이다.**

### 3.4. 창업의지 선행연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창업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로 국내·외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하와 같이 선택한 선행연구를 언급하고자 한다.

김진홍·김영수(2019)의 연구에서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의 전

단계로서, 작은 성공경험(small wins), 창업교육모델링,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사회적 자본, 창업 정책환경을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창업정책을 벤처정책과 함께중소기업 정책에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으며 창업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후기에 이르기까지 창업지원 범위의 확대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의 정도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가치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강선자·변상혜(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위험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을 입증하였다. 장영미(2019)는 시니어그룹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외적요인으로 사회적 인식, 성공역할모델, 재취업 장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재취업장벽 요인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선·김천규(2020)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창업교육을 매개로 모두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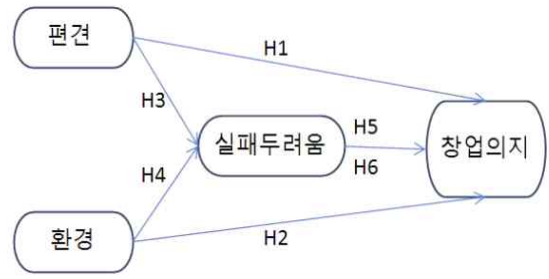
## IV. 연구방법

### 4.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부담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과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구분없이 잠재적 창업가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07월 05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약 6일간 진행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설문지는 총 250부 배포되었고, 이중 응답이 부실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227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 4.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로 편견과 환경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알아보고 편견과 환경이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명하여 3가지 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편견과 환경요인으로 설정하고 두 독립변수가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 두 요인과 창업의지간을 매개하는 실패두려움에 관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 4.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연구모형 설계에서 채택한 변수들은 모두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근거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변수들은 연구목적에 맞게 변수들을 유사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변수들 각각의 조작적 정의와 그에 따라 측정 방법을 설정하였다.

<표 1> 측정지표의 조작적 정의

변수		선행연구	문항수
종속 변수	창업 의지	자기확신과 주도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려는 의지	5
	실패 두려움	창업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낮은 심리적 두려움	5
독립 변수	편견	어떤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감정에 따른 부정적 평가	20
	환경	가족 및 주변인들의 지지 & 경제적·사회적·제도적 환경요인에 대한 인식	9

## V. 실증 분석 결과

### 5.1. 실증분석

본 연구는 SPSS. 25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분석,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행한 뒤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5.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36명(59.0%), ‘여성’ 91명(40.1%)이며, 연령대는 ‘20대’ 74명(32.6%), ‘30대’ 137명(60.4%), ‘40대’ 8명(3.5%), ‘50대 이상’ 3명(1.3%), ‘무응답’ 5명(2.2%)이며, ‘기혼’ 43명(18.9%), ‘미혼’ 184명(81.1%)이고,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29명(13.1%), ‘대졸(4년제)’ 133명(59.9%), ‘전문대졸(2-3년제)’ 53명(23.9%), ‘대학원(석사이상)’ 12명(5.4%)으로 나타났다.

총 직장 근무기간으로는 ‘1년 미만’ 15명(6.6%), ‘1년-3년 미만’ 17명(7.5%), ‘3년-5년 미만’ 49명(21.6%), ‘5년-10년 미만’ 65명(28.6%), ‘10년 이상’ 25명(11.0%), ‘무응답’ 56명(24.7%)이며, 현 직장 근무기간으로는 ‘1년 미만’ 22명(9.7%), ‘1년-3년 미만’ 24명(10.6%), ‘3년-5년 미만’ 53명(23.3%), ‘5년-10년 미만’ 58명(25.6%), ‘10년 이상’ 9명(4.0%), ‘무응답’ 61명(26.9%)로 나타났다.

창업경험 여부는 ‘없음’ 199명(87.7%), ‘있음’ 27명(11.9%), ‘무응답’ 1명(0.4%)이며, 창업실패 여부는 ‘없음’ 209명(92.1%), ‘있음’ 18명(7.9%)이고 가족 및 지인의 창업실패 여부는 ‘없음’ 174명(76.7%), ‘있음’ 53명(23.3%)이며, 창업교육 이수 여부는 ‘없음’ 212명(93.4%), ‘있음’ 15명(6.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33명(14.5%), ‘100만원-200만원 미만’ 22명(9.7%), ‘200만원-300만원 미만’ 32명(14.1%), ‘300만원-400만원 미만’ 74명(32.6%), ‘400만원-500만원 미만’ 52명(22.9%), ‘500만원 이상’ 12명(5.3%), ‘무응답’ 2명(0.9%)이며, 주택 소유 여부는 ‘없음’ 181명(79.7%), ‘있음’ 46명(20.3%)로 나타났고, 직업으로는 ‘학생’ 18명(7.9%), ‘직장인’ 152명(67.0%), ‘공무원 및 전문직’ 5명(2.2%), ‘자영업’ 13명(5.7%), ‘기타’ 37명(16.3%), ‘무응답’ 2명(0.9%)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근무 기간	1년 미만	22	9.7
	1년 - 3년 미만	24	10.6
	3년 - 5년 미만	53	23.3
	5년 - 10년 미만	58	25.6
	10년 이상	9	4.0
	무응답	61	26.9
창업 경험 여부	없음	199	87.7
	있음	27	11.9
	무응답	1	0.4
창업 실패 경험 여부	없음	209	92.1
	있음	18	7.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3	14.5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2	9.7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2	14.1
	300만원 - 400만원 미만	74	32.6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2	22.9
	500만원 이상	12	5.3
	무응답	2	0.9
주택 소유 여부	없음	181	79.7
	있음	46	20.3
직업	학생	18	7.9
	직장인	152	67.0
	공무원 및 전문직	5	2.2
	자영업	13	5.7
	기타	37	16.3
가족 및 지인 창업 실패 여부	없음	174	76.7
	있음	53	23.3
창업교육 이수 여부	없음	212	93.4
	있음	15	6.6

### 5.3.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독립변수인 ‘편견’과 ‘환경요인’의 측정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요인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회전에 있어서는 베리맥스(varimax) 직각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1개 요인이 총 분산의 37.1%를 설명하며, 총 17항목이 포함되었다(<표 3> 참조). 요인적재량은 편견8, 편견12, 편견16 3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테스트도 확인되었다. KMO 값은 0.907으로 1에 근접하여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artlett의 테스트 결과도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결과, 신뢰도 모두 0.6 이상으로, Nunnally &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시켜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7)

	변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36	59.0
	여성	91	40.1
연령	20대	74	32.6
	30대	137	60.4
	40대	8	3.5
	50대 이상	3	1.3
	무응답	5	2.2
	고졸이하	29	13.1
최종 학력	대졸(4년제)	133	59.9
	대학원(석사이상)	12	5.4
	전문대졸(2-3년제)	53	23.9
혼인 여부	기혼	43	18.9
	미혼	184	81.1
총 직장근무 기간	1년 미만	15	6.6
	1년 - 3년 미만	17	7.5
	3년 - 5년 미만	49	21.6
	5년 - 10년 미만	65	28.6
	10년 이상	25	11.0
	무응답	56	24.7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 편견)

변수	구분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Alpha
편견		편견7	0.762	.909
		편견6	0.733	
		편견2	0.714	
		편견3	0.687	
		편견5	0.679	
		편견18	0.674	
		편견20	0.639	
		편견10	0.631	
		편견14	0.625	
		편견9	0.625	
		편견15	0.606	
		편견1	0.596	
		편견17	0.596	
		편견11	0.576	
편견4	0.565			
편견19	0.522			
편견13	0.518			
아이겐값			7.410	
분산%			37.050	
누적분산%			37.050	
주) KMO(Kaiser-Meyer-Olkin): 0.892, Bartlett 검증 유의확률: 0.000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독립변수인 ‘환경요인’에 관한 측정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이 총 분산의 51.8%를 설명하며, 총 9항목이 포함되었다(<표 4> 참조).

요인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테스트도 확인되었다. KMO 값은 0.890로, 1에 근접하여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artlett의 테스트 결과도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결과, 신뢰도 0.6 이상으로, Nunnally &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시켜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 환경요인)

변수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Alpha
환경요인	B7	0.774	.882
	B8	0.764	
	B2	0.733	
	B5	0.731	
	B6	0.730	
	B4	0.724	
	B3	0.706	
	B9	0.697	
	B1	0.601	
아이겐값			4.658
분산%			51.757
누적분산%			51.757
주) KMO(Kaiser-Meyer-Olkin): 0.890, Bartlett 검증 유의확률: 0.000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개변수인 ‘실패두려움’에 관한 측정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이 총 분산의 64.7%를 설명하며, 총 5항목이 포함되었다(<표 5> 참조). 요인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테스트도 확인되었다. KMO 값은 0.788로, 1에 근접하여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artlett의 테스트 결과도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결과, 신뢰도 0.6 이상으로, Nunnally &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시켜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매개변수: 실패두려움)

변수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Alpha
실패두려움	C3	0.871	.862
	C2	0.848	
	C1	0.842	
	C4	0.756	
	C5	0.692	
아이겐값			3.237
분산%			64.739
누적분산%			64.739
주) KMO(Kaiser-Meyer-Olkin): 0.788, Bartlett 검증 유의확률: 0.000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관한 측정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이 총 분산의 70.1%를 설명하며, 총 5항목이 포함되었다(<표 6> 참조).

요인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테스트도 확인되었다. KMO 값은 0.837로, 1에 근접하여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artlett의 테스트 결과도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결과, 신뢰도 0.6 이상으로, Nunnally &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시켜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종속변수: 창업의지)

변수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Alpha
창업의지	D3	0.871	.862
	D2	0.848	
	D1	0.842	
	D4	0.756	
	D5	0.692	
아이겐값			3.507
분산%			70.136
누적분산%			70.136
주) KMO(Kaiser-Meyer-Olkin): 0.837, Bartlett 검증 유의확률: 0.000			

### 5.4.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우선 첫 번째 독립변수의 경우, 편견과 환경요인( $r=.357, p<.01$ ), 편견과 창업의지( $r=.339, p<.01$ )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편견과 실패두려움( $r=.417, p<.01$ )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변수의 경우 환경요인과 실패두려움( $r=.432, p<.01$ )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요인과 창업의지( $r=.616, p<.01$ )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패두려움의 창업의지( $r=.537, p<.01$ )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7> 상관관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 편차	편견	환경 요인	실패 두려움	창업의지
편견	2.7523	0.83840	1			
환경요인	3.5874	0.93075	-.357**	1		
실패 두려움	2.6352	1.03110	.417**	-.432**	1	
창업의지	3.5189	1.06669	-.339**	.616**	-.537**	1

주: 1. \* $p<.05$ , \*\* $p<.01$ , \*\*\* $p<.001$

#### 5.4.1. 편견과 창업의지

본 연구에서 편견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편견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9.165, p<.001$ ).

이와 같이 편견과 창업의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B=-.339, p<.001$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견이 창업의지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편견과 창업의지의 관계

구분	B	SE	t	$\beta$	
상수	4.705	.230	20.406	-	
독립변수	편견	-.431	.080	-5.401***	-.339
모형적합도	R <sup>2</sup> =.115 , F=29.165***				

주: 1. \* $p<.05$ , \*\* $p<.01$ , \*\*\* $p<.001$

#### 5.4.2. 편견과 실패두려움

본 연구에서 편견과 실패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편견을 독립변수로 실패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47.457, p<.001$ ). 이와 같이 편견과 실패두려움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B=.417, p<.001$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견이 실패두려움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편견과 실패두려움의 관계

구분	B	SE	t	$\beta$	
상수	1.223	.214	5.704	-	
독립변수	편견	.513	.075	6.889***	.417
모형적합도	R <sup>2</sup> =.174 , F=47.457***				

주: 1. \* $p<.05$ , \*\* $p<.01$ , \*\*\* $p<.001$

#### 5.4.3.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편견, 매개: 실패두려움, 종속: 창업의지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  $F=47.4571(p<.001)$ , 2단계  $F=29.165(p<.001)$ , 3단계  $F=49.011(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은 1단계  $R^2=.174$ , 2단계  $R^2=.115$ , 3단계  $R^2=.304$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의 공차(TOL)는 .1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beta=.417, p=.000$ 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정(+)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  $\beta=-.339, p=.000$ 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beta=.139, p=.025$ 로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beta=-.479,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세 번째 조건 조건도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39$ 로 나타난 데 반해,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의  $\beta=-.479$ 로 감소하였다.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Sobel test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견과 창업의지와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Z=5.16, p<.001$ ).

<표 10>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sup>2</sup>	F
			B	SE	β				
1	편견	실패 두려움	.513	.075	.417	6.889**	.000	.174	47.457***
2	편견	창업 의지	-.431	.080	-.339	-5.401**	.000	.115	29.165***
3	편견	창업 의지	-.177	.078	-.139	-2.263*	.025	.304	49.011***
	실패 두려움	창업 의지	-.496	.063	-.479	-7.815**	.000		
Sobel test: Z=5.16 , p<.001									

주: 1.\*p<.05, \*\*p<.01, \*\*\*p<.001

### 5.4.4. 환경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

본 연구에서 환경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7.771, p<.001).

이와 같이 환경요인과 창업의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B=.616, 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요인이 창업의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환경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

구분	B	SE	t	β
상수	.985	.223	11.738	-
독립변수	환경요인	.706	4.419***	.616
모형적합도	R <sup>2</sup> =.380 , F=137.771***			

주: 1.\*p<.05, \*\*p<.01, \*\*\*p<.001

### 5.4.5. 환경요인과 실패두려움의 관계

본 연구에서 환경요인과 실패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실패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1.567, p<.001).

이와 같이 환경요인과 실패두려움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B=-.432, 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요인이 실패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환경요인과 실패두려움의 관계

구분	B	SE	t	β
상수	4.351	.247	17.627	-
독립변수	환경요인	-.478	-7.181***	-.432
모형적합도	R <sup>2</sup> =.186 , F=51.567***			

주: 1.\*p<.05, \*\*p<.01, \*\*\*p<.001

### 5.4.6. 매개효과 검증

독립: 환경요인, 매개: 실패두려움, 종속: 창업의지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 F=51.567(p<.001), 2단계 F=137.771(p<.001), 3단계 F=99.34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은 1단계 R<sup>2</sup>=.186, 2단계 R<sup>2</sup>=.380, 3단계 R<sup>2</sup>=.47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의 공차(TOL)는 .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β=-.432, p=.000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부(-)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 β=.616, p=.000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β=.472, p=.000으로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β=-.333,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세 번째 조건 조건도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β=.616로 나타난 데 반해,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의 β=.472로 감소하였다.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경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Z=4.66, p<.001).

<표 12>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sup>2</sup>	F
			B	SE	β				
1	환경 요인	실패 두려움	-.478	.067	-.432	-7.181***	0.000	.186	51.567***
2	환경 요인	창업 의지	.706	.060	.616	4.419***	0.000	.380	137.771***
3	환경 요인	창업 의지	.541	.062	.472	8.760***	0.000	.470	99.344***
	실패 두려움	창업 의지	-.345	.056	-.333	-6.178***	0.000		
Sobel test: Z=-4.66 , p<.001									

주: 1.\*p<.05, \*\*p<.01, \*\*\*p<.001

## V. 결론

창업의 결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창업의 결단 및 확신에 방해를 일으키는 근거 없는 생각에 대한 편견과 창업자의 주변 환경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패두려움을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편견은 창업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근거없는 판단의 결과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초래하여 불안 또는 두려움을 증가시켜 창업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견고히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창업문화의 확산은 창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긍정적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환경요인은 창업의지를 증가시키므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가족의 지지나 국가적 창업지원 제도는 창업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가정에서 창업에 대한 노출 경험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창업은 창업의지를 저해시킬 수 있다. 국가의 창업지원이 미약할 경우도 창업의지를 저해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의지는 창업자의 내·외부적인 환경요인이 모두 창업자에게 긍정적일 때 창업의지가 증가하므로 무엇보다도 지지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이 창업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편견이 실패두려움을 증가시키므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편견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으로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무엇보다도 다소 위험이 따르는 창업결정에 위험회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톨모델 노출을 경험하며 편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습 인지시킨다면 창업의지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환경이 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가설 H-4 또한 채택되었다. 창업을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창업자의 실패두려움은 낮아지므로 긍정적인 창업환경은 창업자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실패두려움이 편견과 창업의지를 매개하는 가설 H-5은 부분매개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되었다. 여섯째, 실패두려움이 환경과 창업의지를 매개하는 가설 H-6 또한 부분매개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되었다. 편견은 실패두려움을 증가시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 또한 감소시켰다. 그리고 환경요인은 실패두려움 감소시키고 그 실패두려움도 창업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볼 때 편견과 환경에 투입된 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도 함께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고 지지받을 수 있는 창업환경과 창업자에게 적합한 창업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감정적 초기 진입장벽을 우선 낮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 편견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창업 의지에 중요한 부분임을 본 연구 결과 확인하였다. 창업은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 시장에 대하여 보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편견의 요소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의지를 근거 없이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며 제거되어야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 창업을 지지하는 환경요소는 창업의 확신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창업문화는 더 기대되는 창업자를 양성해 낼 수 있다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 VI.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견의 범위를 단일 요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편견에 대하여 성별, 나이, 지리적, 사회적 편견 등 세부적 하위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한다면 편견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환경요인에 대한 하위요인을 설정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도 작아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문이 지역별로 서베이가 진행되었다면 지역 간의 편견과 환경요인의 차이를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연구의 한계로 추후 후속 연구들이 보다 깊이 있고 세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REFERENCE

-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강선자·변상해(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85-96.
- 고든 울포트(2020). *편견*. 서울: 교양인.
- 공혜원·김효선(2018).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도의 관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31(12), 2223-2244.
- 공혜원·추승엽(2021). 창업초기 투자유치성과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570-579.
- 김기현·배정희(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1-80-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3.
- 김도희(2023). *중장년 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석현(2015). 창업대중화 시대의 열쇠: 창업교육의 대중화. *과학기술정책*, 25(6), 8-9.
-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영희(2018).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n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8(3), 1-62.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88(1), 79-101.
- 김진홍·김영수(2019). 창업교육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교육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6), 561-582.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88(1), 37-62.
-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 생존에 대한 중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27-43.
- 대한상공회의소(2015). *창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머니투데이(2004). *한국 사람 교회 중국*, 20230910 from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04110115280054208>.
- 박남규(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박성호(2017). *창업환경과 창업 자기효능감 및 경제적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박종범(2020). *액티브시니어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성은정(2019). *20-30대 청년층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송경숙(2015).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393-407.
- 아기마(2022). *몽골 직장인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 오상훈(2014). *청장년 및 시니어 그룹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오상훈·하규수(2013). 창업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143-157.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병선·김천규(2020).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창업교육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3), 207-221.
- 이명애(2012).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 이선경(2023). *기업 및 지역 특성이 창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부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재호(2016). *창업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비교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홍장(2016). *창업환경과 기업가특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 효율, 요소 주도형 국가별 차이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장영미(2019). *시니어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정길호·김병근(2017). 창업환경 요소가 기술경쟁력과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역량,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지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2(2), 232-255.
- 정주영(1998). *이 땅에 태어나서*. 서울: 솔출판사.
- 조한준·최대수·성창수(2020).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2), 81-96.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제142016호)*, 대전사: 창업진흥원.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2). *주요선진국의 창업 벤처통계 비교 분석(조사연구-2022)*, 세종시: 창업진흥원.
- 지용희(2003). 경제전쟁과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 1-11.
- 최양애·동학림(2019). 시니어의 개인 및 사회적 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6(3), 91-109.
- 추병완(2012). 편견 이론에 근거한 반편견 교수 전략. *교육과정평가연구*, 15(1), 127-156.
-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 의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하규수·한정화(2010). 학술연구: 기업가의 사업실패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2(1), 21-41.
-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5), 59-74.
- 하규수·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3406-3414.
- 하환호(2012). 긍정적 인지편향이 고객의 불평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13(3), 87-107.
- 하환호·변종규(2014). 창의적 성격특성과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9(4), 1-22.
- 홍영오(2000). *암묵적 편견이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Aldrich(1979).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14.
- Alon, I., Yeheskel, O., & Lerner, M.(2008).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IN CHINA. *Cell*, 407, 913-8842.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 233-247.
- Autio, E., & Pathak, S.(2010). Entrepreneur's exit experience and growth aspiration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0(5), 2.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rixy, U., Sternberg, R., & Stüber, H.(2012). The sel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0(1), 105-131.
- Choo, B. W.(2012). Anti-bias teaching strategies based on prejudice theory: *Curriculum Evaluation Research*, 15(1), 127-156.

- Choi, Y. A., & Dong, H. R.(2019). The impact of seniors' personal and social readines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26(3), 91-109.
- Cho, H. J., Choi, D. S., & Seong, C. H.(2020). Study on the impact of startup mentoring on startup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tartup self-efficacy. *Venture Entrepreneurship Research*, 15(2), 81-96.
- Davaadorj Agiimaa.(202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ngolian Workers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amily Support and Age Moderating Effect*, Master's thesis, Kyoungsa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Ernst & Young(2011). *2011 High-impact entrepreneurship global report: The center high-impact entrepreneurship*.
- Ekore, J. O., & Okekeocha, O. C.(2012). Fear of entrepreneurship among university graduates: a psych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29(2), 515.
-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Gong, H. W., & Kim, H. Y.(2018).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31(12), 2223-2244.
- Gordon, W. A.(2020). *The Nature of Prejudice*. Seoul: Kyoyangin.
- Gong, H. W., & Choo, S. Y.(2021).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investment attraction performance in the early stages of starting a bus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21(9), 570-579.
- Ha, G. S.(2009). *Study on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 Costs and Business Motiv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ong, Y. O.(2000). *The impact of implicit bias on the activation of stereotyp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Ha, G. S., & Han, J. H.(2010). Academic research: Research on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 stress and business motivation. *Small Business Research*, 32(1), 21-41.
- Hessels, J., Grilo, I., Thurik, R., & van der Zwan, P.(2011). Entrepreneurial exit and entrepreneurial engagement.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21, 447-471.
- Ha, G. S., & Yoon, B. J.(2011). A study on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startup success and failure on startup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Education and Technology*, 12(8), 3406-3414.
- Ha, G. S.(2012). The impact of attitude toward business and fear of failure on the motivation to start a business,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19(5), 59-74.
- Ha, H. H.(2012). The impact of positive cognitive bias on customers' complaining attitudes.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13(3), 87-107.
- Ha, H. H. & Byeon, C. G.(2014). The impact of creative personality traits and capabilities on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4), 1-22.
- Han, S. J.(2016). The impact of fear of failure among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Venture Entrepreneurship Research*, 11(3), pp. 49-61.
- Jeong, J. Y.(1998). *Born on this earth*. Seoul: Sol Publishing.
- Ji, Y. H.(2003). Economic war and Yi Sun-sin. *Yi Sun-sin Research Journal*, (1), 1-11.
- Jeong, G. H., & Kim, B. G.(2017). The impact of start-up environment factors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focusing on start-up capabilities, organizational culture, external cooperation, and use of start-up support. *Journal of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232-255.
- Jang, Y. M.(2019). *The impact of senio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their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Venture Graduate School.
- Kang, B. S.(2020). *The impact of seniors'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ang, S. J., & Byeon, S. H.(2017). The impact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ation characteristics on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Venture Entrepreneurship Research*, 12(4), 85-96.
- Kim, D. H.(2023). *The Effect of Senior Entrepreneur Capabilities on Entrepreneur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Dankuk University.
- Kim, H. S.(1988). The reality of inter-regional stereotypes and prejudice: Is ther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1988(1), 37-62.
- Kim, J. G.(1988). The reality of regionalism and ways to resolve i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1988(1), 79-101.
- Kim, J. H., & Kim, Y. S.(2019). A study on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ship will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34(6), 561-582.
- Kim, K. H., & Bae, J. H.(2021). 2021 Youth Social and Economic Survey: Basic Analysis Report,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Collaborative Research Series, 21-80-02,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153.
- Kim, S. H.(2015). The key to the era of popularization of entrepreneurship: Populariz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5(6), 8-9.
- Kim, S. J., Han, J. H., & Lee, S. M.(2016). The impact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fear of failure on their

-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Venture Entrepreneurship Research*, 11(3), 49-61.
- Kim, Y. H.(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fear of startup failure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pirit. In *Korea Entrepreneurship Association Conferences*, 2018(3), 1-62.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2015). *Survey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tasks for youth entrepreneurship*, Seoul: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Lee, H. J.(2016).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start-up environment and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Analysis of innovation, efficiency, and factor-driven differences by country*.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Lee, H. S., & Baek, M. J.(2012). A study on the impact of youth'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norms.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Research*, 15(2), 65-84.
- Lee, J. H.(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and the burden of failure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afety net through cross-country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 Lee, M. Y.(2012). *A Study for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emale-Owned Business in Kore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S. K.(2023).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Credit Guarantee Default of Small Business Start-up Companies: Analysis by industry using the Survival analysis method*. Master's thesis, Major in Local Governments and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 Liñán, F., Urbano, D., & Guerrero, M.(2011).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0). To thine own self be true: Images of self, images of opportunity, and entrepreneurial ac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1), 138-154.
-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and start-up promotion agency(2017). *2017 Survey of Start-up Companies (No. 142016)*, Daejeon City: Start-up Promotion Agency.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 *Start-up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Comparative analysis of venture statistics (Research-2022)*, Sejong City: Start-up Promotion Agency.
- Moneytoday(2004). *Korean Church China*. 20230910 from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04110115280054208>.
- Nam, J. M., Jeon, B. J., & Park, J. W.(2013). A study on key factors at the start-up preparation stage that affect start-up success: Longitudinal analysis of start-up survival using the Korean Labor Panel.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5), 27-43.
- Nunnally, B., & Bernstein, I.(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 Oh, S. H.(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on the entrepreneurial will of young and senior grou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Venture Graduate School.
- Oh, S. H., & Ha, G. S.(2013). The impact of start-up environment and perception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rough the burden of business failure.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11(8), 143-157.
- Park, J. B.(2020).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Park, N. G.(2015). *The impact of start-up support policies and entrepreneurship spiri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burden of business failure and self-efficacy*. Doctoral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Venture Graduate School.
- Park, S. H.(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start-up environment,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burden of economic failure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control variables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nd the parameters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Venture Graduate School.
- Sahasranamam, S., & Sud, M.(2016).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hip: A comparative study of India and China.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2(1), 21.
- Schumpeter, J.(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 37(2), 69-86.
- Seong, E. J.(2019).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Venture Graduate School.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Shinnar, R. S., Giacomini, O., & Janssen, F.(2012).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The role of gender and cul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3), 465-493.
- Sjölander, C., & Berterö, C.(2008).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mong newly diagnosed lung cancer patients in Sweden. *Nursing & health*

- sciences*, 10(3), 182-187.
- Song, G. S.(2015). The impact of the startup environment of small business owners on the burden of failure and startup failur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393-407.
- Tajfel, H.(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1-39.
- Tam, S., & Redding, S. G.(1993). *Entrepreneurship Research: Global Perspective*, eds. S. Birley and IC MacMillan.
- Vaillant, Y., & Lafuente, E.(2007). Do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condition the influence of loc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examples over entrepreneurial activit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4), 313-337.
- Welpe, I. M., Spörrle, M., Grichnik, D., Michl, T., & Audretsch, D. B.(2012). Emotions and opportunities: The interplay of opportunity evaluation, fear, joy, and anger as antecedent of entrepreneurial exploit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1), 69-96.
- Wood, M. S., & Pearson, J. M.(2009). Taken on faith? The impact of uncertainty, knowledge relatedness, and richness of inform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xploitation.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6(2), 117-130.
- Yoon, B. S., & Kim, C. G.(2020).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Venture Entrepreneurship Research*, 15(3), 207-221.
- Yoon, N. S.(2012). The impact of potential entrepreneurs' startup motivation factors on entrepreneurship and will to start a business. *Industrial Economics Research*, 25(2), 1537-1557.



# A Study on the Impact of Prejudice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Mediating Role of Fear of Failure

Lee, Ji Youn\*  
Jeong, Chan Gu\*\*

## Abstract

Start-ups ar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country's start-up support polic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ut indicators that do not challenge them and do not consider future start-ups can predict employment reduction and unemployment can increase further. You ca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people doing nothing is causing economic hardship and neglect of future precious human resources, which calls for a more realistic national entrepreneurship policy.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bia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order to reve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mong potential entrepreneurs in Korea. For this purpos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on a sample of 227 responses from the general public who are potential entrepreneurs interested in starting a business. As a result, prejudice decreased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increased fear of failure. On the other hand, the entrepreneur's environmental factors reduced the fear of failure and increased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Lastly, fear of failure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rejudice was a negative factor i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the environment was a positive factor.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revitalize entrepreneurship, positiv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provide entrepreneurs' correct recognition and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are necessary.

*KeyWords: Entrepreneurial Intention, prejudice, environmental factors, fear of failure, entrepreneurship, starting a business*

---

\* First Author, Doctoral Program,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nicejtly@gmail.com

\*\* Co-Author, 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jck216@hoseo.edu